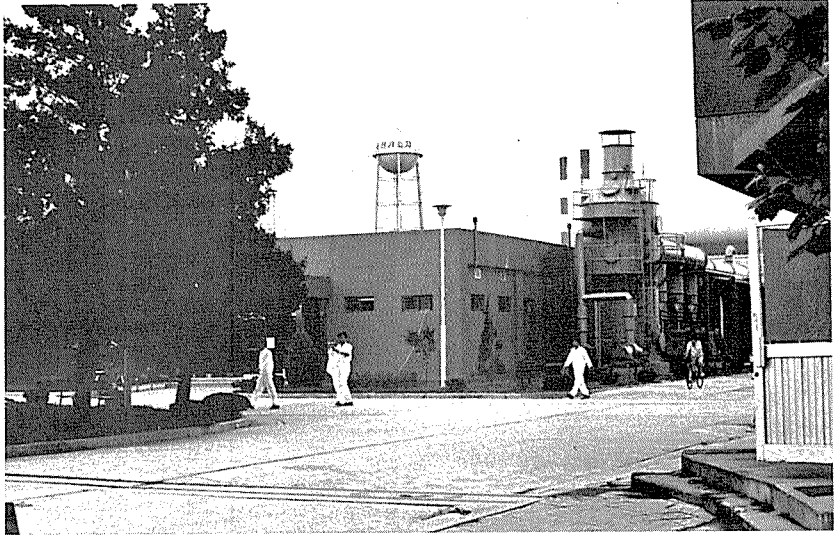


“근로자 보건 의식 개선 위한



● 24시간 가동되는 수출산업의 현장 구미공단

대구시에서 40여분 남짓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오늘도 수출한국을 위해 도시전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구미시 공업단지에 들어서게 된다.

시원하게 펼쳐진 아스팔트 위에는 연신 대형차량이 대열을 갖추어 달려가고, 길가에 오가는 사람이 드문 것은 모든 사람이 일터로 나가 뛰고 있는 공업 도시로서의 풍경을 말해 주는 듯 싶다.

『이곳 구미공단은 많은 공장들이 24시간 가동되어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87년에 10,000여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염검사를 필두로 해마다 더 많은 인원을 검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협 경북지부 이 우광사업과장의 이야기다.

『많은 인원을 검사할 때는 다소 무리가 뒤따릅니다. 물론 검사방법이나 절차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평소에 가졌던 의문사항을 풀어 줄 상담시간이 거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구미시 공업단지 의료보험조합 근로자 건강검사

健協 경북지부는 구미 공업단지 의료보험조합 산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7년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간염검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해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

근로자의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계몽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증명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이 검사의 현장을 찾아가 의보 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많습니다.』라며, 사업장 사정으로 사전 보건계몽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한다.

● 보건 의식구조 개선이 건강관리의 최우선

얼마 전에 입주했다는 구미시 의보조합의 산뜻한 건물에 들어서자 초여름의 더위속에 많은 서류를 놓고 씨름하는 조합직원의 열기가 다가온다.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기본 자산이랄 수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만, 선진국에 비해 보건 의식구조가 낮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계몽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은 이번에 신축한 청사내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설치해서 정기적인 건강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미공단 의보조합 윤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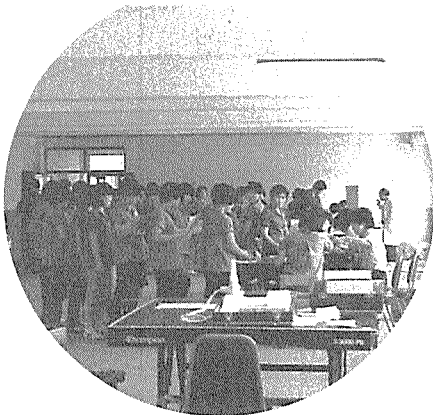


▲조합 신축 청사내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구미공단 의보조합 윤호일 총무부장. (사진왼쪽)

▼검사기간 동안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조합원들이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일총무부장의 얘기다.
『이번에 견협에서 실시한 검사기간 동안의 커다란 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조합원들이 건강할 때부터 즉,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각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복지 향상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보건계몽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건계몽교육을 실시하면서 조합원 모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견협 경북지부와 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그는 산하조합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을 말해주었다.



● 근로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실감했을 때가 가장 기뻐다.

또한 검사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는 구미공단의보조합 관할 사업장인 한국전자주식회사 의보담당 金華珠양은, 『정말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컸지요. 저희 회사 근로자는 대략 2,400여명이 되는데 저와 같은 20대여성이 대다수입니다. 근무시간이 2교대제라 출퇴근시간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 자신도 건강한테 무슨 검사냐, 주사바늘은 보기도 싫다라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검사를 기피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검사당일날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고생해서 모인 1,894명의 근로자가 간염검사를 받고 그중 63%에 해당되는 1,195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건강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매달 지불하는 의료보험료가 환원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의보혜택에 대해서도 직접 느끼게 되면서 사내 의보업무를 담당하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할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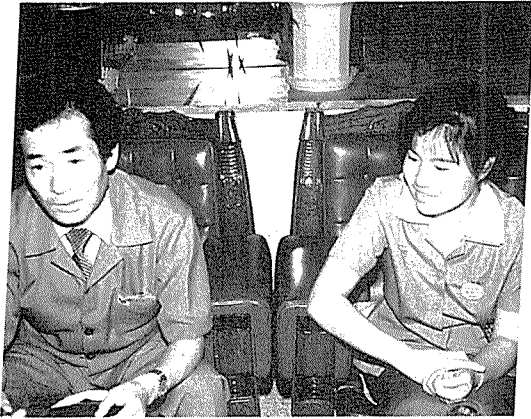
● 검사종목 확대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그녀는 또, 검사당시 부족했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검사기간동안은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검사를 받기 전에 계몽교육이 필요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검사를 받으며 그 검사는 왜 필요한지 등을 근로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깐, 아무 생각없이 검사를 받는 사람이나 심지어 기피하는 사람까지 생기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심같지만 앞으로는 의보환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검사종목도 늘어나서 근로자 복지향상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또, 건협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건협은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서 일반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져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검사를 받기전에는 검사기관이 건협이란 말만 듣고 시내병원에서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을때 건협 직원들이 보여준 친절함은 병원에만 가면 경직되어 버리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검사자 개개인에게 통보된 결과는 공익전문검사기관으로서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근로자 생활이 갖는 어려운 여건·근로자 자신의 건강관리 기피증(?)을 극복하고 건강검사를 마쳤을 때가 가장 보람있었다는 金華珠양. (사진 오른쪽)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동참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다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국가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건협의 검사를 받고 나서야 자세히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건협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국민이 건협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 건강에 관한

가치부여가 수확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딘가 아플 때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곳 사람들, 하기야 낮과 밤이 구별없이 일터에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할 여유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마는 건강검사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북지부

에서 추진한 구미공단외보조합원들의 간염검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초창기 건강관리사업에서 극복했어야 할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쳐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즉, 일반국민들이 잘 모르던 사실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될 때 거는 기대와 욕구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반면에 건협은 그들이 거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 '87년 1만여명의
근로자 간염검사에서
시작된 의보조합 근로자
건강검사와 보건계몽교육
확대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이우광 경북지부
사업과장은 다짐했다.

한편 건협 경북지부 이 순사무국장은 앞으로의 건협충북지부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 경상북도는 지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의 사업활동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년초부터 세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교육 후검사를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있지만 사업장 여건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사업장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건계몽교육을 검사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장별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보다 많은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활용되는 협회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대효과를 높여 지역주민건강향상에 주력하고, 제2세대 보호관리를 위하여 각 학급 단위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현·글)